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s Career Maturity

조연희(Yeoun-hee Jo), 이주연(Joo-Yeon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child's career matu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In order to achieve our goals, the present study 1) analysed the differences in the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 child's career maturity, and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child's sex, and 2) examin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nd child's career maturity on school adjustment. A total of 430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achievement child-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child's sex. Boys perceived their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as more achievement-oriented than girls. Second, child's career maturity mediated the relation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 and their school adjustment. Specifically, the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career maturity were found in all of the relations between sub-factors of child-rearing attitude(affection, autonomy, achievement, and rationality), and child's career matur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peer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n that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have both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child's school adjustment and child's career maturity are all very important factors on their school adjustment.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diverse career programs to improve child's career maturity.

▲주제어(Key words): 어머니의 양육태도(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 학교생활적응(school-adjustment),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I. 서론

인간은 전 생애를 통해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주요한 환경의 중심지는 발달의 각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아동기는 가정 안에서 부모 및 형제와 주된 관계를 형성하던 영유아기 때와는 달리 생활의 중심이 학교로 이동하는 시기이다. 아동에게 학교는 교사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로 2014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Joo-Yeon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77 Youngbong-ro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27, E-mail: idscot@jnu.ac.kr

나 친구와 같은 다양한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 관계의 장소이다. 더욱이 학교는 학교생활의 적응 및 성취 여부를 통해 이후 청년기 및 성인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곳으로 사회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O. Chung, 2010). 그러므로 이 시기의 학교생활적응은 해당 시기뿐 아니라 이후 전 생애에 걸쳐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학교 부적응으로 파생된 왕따,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탈락하거나 혹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늘고 있어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 문제에 있어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다(L. A. Kurdek, M. A. Fine, & R. J. Sinclair, 1995).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며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행동양식 등은 아동의 생활습관 및 행동양식의 형성을 통해 대인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일관되게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한다(Y. Cha, 2001; U. Jung, 2002; S. Lee, 2001; S. Yoon, 2007).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며(G. Kim, 2009; L. A. Kurdek, et al., 1995; E. Lee & K. Kim, 2005; Y. Park, 2009; G. S. Pettit, J. E. Bastes, & K. A. Dodge, 2005; R. P. Rohner, 2010; Y. Yu, 1994),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로의 전이과정에서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대한 보호요인 및 예측요인으로 작용한다(M. R. Burchinal, J. E. Roberts, S. A. Zeisel, & S. J. Rowley, 2008;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4). R. P. Rohner(2010)와 M. A. Kurdek 등(1995)은 부모의 온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Y. Yu(1994)는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학교적응이 양호하다고 하였다. G. Kim(2009)도 부모의 수용적, 합리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돕는다고 하였다. 반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압적일수록 그리고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거부적, 통제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다(K. Aunola & J. Nurmi, 2005; M. Ha & S. Lee, 2009).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합리적,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을 돕고, 방임, 거부, 통제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을 저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Y. Park(2009)은 특히 어머니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아버지와 비교할 때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따로 분석한 경우를 살펴보면, S. Jung(2006)는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친애적일수록 아동과 교사관계에 대한 학교생활적응력이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일수록 교우관계, 학교수업, 그리고 학교규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E. Lee and K. Kim (2005)도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일 때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 등 각 영역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요한 요인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꿈과 비전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J. Keum, 2012). 아동들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를 터득하여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게 되면, 아동들은 학습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학교생활은 의미 있는 생산 활동이 될 것이다(J. Kim, 2010).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은 나쁜 길로 쉽게 빠지지 않는 까닭에, 이런 확고한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진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경우 학교활동 및 수업에의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M. E. Kenny, D. L. Blustein, R. F. Haase, J. Jackson, & J. C. Perry, 2006).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진로성숙도라는 개념을 연구하였다(J. Keum, 2012; E. Kim, 2005; J. Kim, 2010; J. E. Kuldau & J. W. Hollis, 1971; E. Park, 2011; Y. So, 2011; B. W. Westbrook, 1984). 뿐만 아니라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도 아동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활동'을 추가하는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진로성숙도(career maturity)는 D. E. Super(1955)와 J. O. Crites(1974)에 의해 발달된 개념으로 자아에 대한 이해,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며 개인이 같은 연령대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 내에서 발달과업 수행정도에 따라 차지게 되는 상대적 위치를 의미한다(as cited in K. Nam, 2004; D. E. Super, 1996). 따라서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자기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의사결정과 관련

된 능력을 가지며,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합하여 진로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실행한다고 하였다(K. Kim, 2009). 진로성숙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다(J. Keum, 2012; E. Park, 2011; Y. So, 2011). 즉, 진로성숙이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E. Kim, 2005; J. Kim, 2010)들과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J. Keum, 2012; E. Park, 2011).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본 B. Choi(2008)은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교환경적응을 제외한 학교규칙적응, 학교친구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수업적응 및 학업성취와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로성숙도의 향상을 통해 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는 아동들이 겪는 부적응과 탈선, 우울증, 그리고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진로성숙도의 영향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아동의 성장이 빨라짐에 따라 사춘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나타난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는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라 할 수 있으며,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진로성숙도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E. Han, 2010; E. Jo, 2009; K. Kim, 2009; K. Nam, 2004; M. Nam, 2002; J. Shim, 2011; B. Song, 2013). 반면에 아동대상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성별이나 연령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부모와의 애착,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등 부모의 영향력을 들 수 있다(S. Choi, B. Hutchison, & M. E. Lemberger, 2012; B. K. Keller & S. C. Whiston, 2008). 개인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정환경, 부모의 기대, 그리고 직업조건 등과 같은 외적 요인들과 함께 자신의 능력, 적성, 성격, 흥미 같은 내적 요인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한다. 진로 선택에 있어 외적 요인 중 초등학교시기에 아동에게 있어 가장 의

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모이다(Y. Ji, 2005).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및 가치와 사고방식의 형성, 생활양식과 관습의 습득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자녀에게 영향을 주며 자녀의 진로성숙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외적요인이라 하겠다(M. Park, 2009). 진로성숙에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적 요인을 주요 변인으로 하여 진행해왔으나 개인적 요인과 함께 가족 요인, 학교 요인, 또래관계 요인,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개인 외적인 요인을 영향 변인으로 포함하는 연구들이 최근 이루어지고 있다(K. J. Yon, J. Joeng, M. Goh, 2012). 또한 일부 변인만으로 진로성숙에 관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가정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 K. Keller & S. C. Whiston, 2008; K. Kim, 2009).

실제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간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한다(Y. Ji, 2005; K. Kim, 2009; M. Nam, 2002; M. Park, 2009; H. So, 2002). H. So(200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또 아동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적, 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 Nam, 2002). Y. Ji(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일 때 남아의 진로태도를 성숙하게 하며, 애정적, 성취적, 합리적일수록 여아의 진로태도를 성숙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M. Park(2009)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진로성숙도의 태도 및 능력에 대해 영향력이 거의 없었던 반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중 특히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대해 주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두 개 변인들 간의 상관 및 인과관계만을 분석하고 있을 뿐,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의 세 개 변인을 함께 분석한 연

구는 찾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으며,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으로 진로성숙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진로성숙도는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 변인의 관계를 통합해 보면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에서는 양육자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경우는 없다. 양육태도를 통해 표현되는 가정 내 양육자와 아동의 관계는 그 자체로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진로성숙도와 같은 아동의 개인 내적 성향 및 가치관이 아동의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개인 외적 환경 변인이 개인의 적응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있어 개인 내적 변인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일부 연구들(J. Keum, 2012; H. Seo, 2013)의 변인 간 경로 메카니즘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J. Keum(2012)에 의하면, 진로성숙도는 부모관련 변인보다 학교생활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적응에는 부모와의 교감을 통한 심리적 안정성이 중요한데 이는 진로성숙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환경적 변인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들을 매개하는 개인 내적 변인을 밝히는 일은 변인들 간의 전체적인 경로 메카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연구하였던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여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H. Jeon, 2006), 부모 중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경우 자녀가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S. Kim, 2002)에 근거하여, 어머니 보고 자료가 아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보고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변인들 간 관계에 대한 주요 분석에 덧붙여 본 연구에

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아동의 성에 따라 주요 변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전과는 구별되는 성에 따른 새로운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아동의 변화는 부모와의 관계나 학교생활적응, 진로와 관련된 가치관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어머니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에서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을 위한 보다 개별화된 제언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다. 즉, 여아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온정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M. Park, 2009; Y. Park, 2009)이 있는 반면, 이와는 상반되게 M. Ha and S. Lee(2009), U. Jung(2002)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아동 중심적, 민주적, 애정적, 합리적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태도가 다르다는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성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가치나 기대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모의 행동이 다른 것을 반영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실제적 행동과는 무관하게 아동의 인식차이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남녀아동의 인식차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성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경우, 중학생을 대상으로 4년간의 종단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이며 이러한 성에 따른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S. Choi et al., 2012).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연구(M. Choi, 2003; C. Lee, 2007; B. Song, 2013)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는 연구(H. Lee, 2004)가 공존한다. 또한 남녀 학생 간에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Y. Chae, 2003; S. Ryu, 2012)도 보고되는 등 일관된 결과를 찾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은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한다(S. Cho, 2012; Y. Park, 2009). 이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규칙에 더 충실하고 교우관계가 더 좋다고 보고한 연구(H. Joo, 1998)와 비슷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사회성이 더 일찍 발달하기 때문으로 설명하며 여아가 교사 및 교우들과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지향적 성향을 갖기 때문으로 본

다. 그러나 여아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들과는 달리 학교생활적응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Y. Jang & J. Park, 2008; E. Lee & K. Kim, 2005)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이들을 매개하는 진로성숙도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변인들 간의 전체적인 경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진로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조사 자료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로를 지도하는 학교현장에서 진로 및 학업, 학교생활에 관한 실태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진로성숙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애정, 자율, 성취, 합리)와 학교생활적응(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의 3개구에 위치한 6개 초등학교 6학년 18개 학급 남녀아동 430명이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는 최근 아동의 성장이 빨라짐에 따라 사춘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부터 나타난다는 점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아동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한 주요 변수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식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 Oh and C. Lee(1982)이 제작한 것(4개 영역, 60문항)을 S. Lim(1988)가 반복되는 문항을 간추려 4개의 하위영역에 각 10문항씩 40문항으로 재편성한 ‘부모 자녀 양육태도 지각 검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부모의 양육방법을 애정, 자율, 성취, 합리의 4개 차원으로 나누고, 각각의 차원을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양극화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4개 요인별로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하위요인별로 애정 .86, 자율 .67, 성취 .81, 합리 .84의 값을 보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2였다.

2) 진로성숙도

본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I. Chung, J. Im, and M. Hwang(2011)이 개발 및 타당화한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계획성 7문항, 자기이해 6문항, 일에 대한 태도 5문항, 독립성 4문항 등 4요인,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성숙도 점수는 부정문항을 역채점하여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에 대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30)

Variable		N(%)	Variable		N(%)
Child’s sex	Male	223 (51.9)	Employment status	Employed	271(63.0)
	Female	207 (48.1)		Non-employed	155(36.1)
Mother’s age	Under 35	35 (8.1)		No answer	4(0.9)
	36-40	178 (41.4)	Mother’s education level	Under high school	134 (31.2)
	41-45	173 (40.2)		Undergraduate	259 (60.2)
	Over 46	37 (8.6)		Graduate	23 (5.3)
No answer	7 (1.7)	No answer		14 (3.3)	
Child’s birth order	First	187 (43.5)	Family Economic status	Under middle-low	33 (7.7)
	Second	181 (42.1)		Middle	287 (66.7)
	After third	59 (13.7)		Over middle-high	100 (26.3)
	No answer	3 (0.7)		No answer	10 (2.3)

이해,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능력을 가지며 진로 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계획성 .81, 자기이해 .81, 일에 대한 태도 .61, 독립심 .70이었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3이었다.

3)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Y. Cho(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척도를 아동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를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우측통행을 한다.'로, '주변활동'을 '학급 봉사활동' 등으로 수정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교사관계 8문항, 교우관계 8문항, 수업태도 8문항, 학교규칙 8문항 등 모두 4개의 하위요인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교사관계 .82, 교우관계 .77, 수업태도 .77, 학교규칙 .76,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처리

본 연구는 2014년 6월 16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구, 서구 3개 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6곳을 임의 표집하고, 해당 학교의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담임선생님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학급을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처리방법, 참여

자의 익명성 및 자율성, 질문지에 응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시간은 30분 정도로 하여 아동들이 설문지를 직접 읽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452부를 배포하여 441부가 회수되었고, 이 가운데 430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표본의 일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t -test로 검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추후검정으로 Sobel Z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요인 별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태도의 차이는 하위요인 중 성취($t=3.66$,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M=3.82$, $SD=.51$)이 여학생($M=3.63$, $SD=.52$)에 비하여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애정, 자율, 합리적 양육태도의 경우 아동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Table 2. Differences in parenting attitude, career maturity,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child's sex

Variable	Sub-factors	Groups	N	M(SD)	t
Mother's parenting attitude	Affection	Male	221	3.90(.55)	.57
		Female	206	3.87(.58)	
	Autonomy	Male	221	3.27(.42)	-.31
		Female	206	3.29(.47)	
	Achievement	Male	221	3.82(.51)	3.66***
		Female	206	3.63(.52)	
	Rationality	Male	221	3.60(.61)	.45
		Female	206	3.57(.65)	
Career maturity	Male	223	3.78(.46)	.36	
	Female	207	3.76(.47)		
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s	Male	223	3.74(.60)	-1.17
		Female	207	3.81(.69)	
	Relationship with peers	Male	223	3.94(.56)	-.41
		Female	207	3.97(.64)	
	Classwork attitude	Male	223	3.56(.61)	.34
		Female	207	3.54(.66)	
	School regulation	Male	223	3.57(.57)	-.04
		Female	207	3.57(.56)	

*** $p < .001$

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어머니를 더 온정적으로 지각하며(M. Park, 2009; Y. Park, 2009) 또는 남학생이 어머니를 더 애정적이라고 지각한다는 선행연구(M. Ha & S. Lee, 2009)들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Table 2>의 다른 분석결과를 보면, 아동의 진로성숙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역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Y. Jang and J. Park(2008)과 E. Lee and K. Kim(2005)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 별로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이용한 R. Baron and D. Kenny(1986)의 3단계 검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M. E. Sobel(1982)이 제안한 Z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양육태도 하위요인별로 변인들 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부터 <Table 6>에 제시하였다.

1)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먼저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의 경우, 분석 1단계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0.66, p<.001$). 분석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2.74, p<.001$). 마지막으로 분석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가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진로성숙도가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1, p<.001$).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가 교사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1단계에 비해($\beta=.40, p<.001$) 감소함으로써($\beta=.29, p<.001$), 진로성숙도가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간에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R. Baron & D. Kenny, 1986). 매개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Z값은 5.22로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교에서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진로성숙도도 높을 뿐 아니라 더불어 높은 진로성숙도는 교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ffection and child's school adjustment (N=430)

Dependent variables	Analysis step	Paths	β	R^2	F	Sobel Z
Relationship with teachers	Step 1	affection → relationship w/ teachers	.40***	.16	80.66***	5.22***
	Step 2	affection → career maturity	.36***	.13	62.74***	
	Step 3	affection → relationship w/ teachers career maturity → relationship w/ teachers	.29*** .31***	.24	68.41***	
Relationship with peers	Step 1	affection → relationship w/ peers	.38***	.14	71.38***	5.10***
	Step 2	affection → career maturity	.36***	.13	62.74***	
	Step 3	affection → relationship w/ peers career maturity → relationship w/ peers	.27*** .30***	.22	61.30***	
Classwork attitude	Step 1	affection → classwork attitude	.41***	.17	87.79***	5.76***
	Step 2	affection → career maturity	.36***	.13	62.74***	
	Step 3	affection → classwork attitude career maturity → classwork attitude	.28*** .37***	.29	86.30***	
School regulation	Step 1	affection → school regulation	.32***	.11	49.92***	5.33***
	Step 2	affection → career maturity	.36***	.13	62.74***	
	Step 3	affection → school regulation career maturity → school regulation	.21*** .33***	.20	53.25***	

** $p < .01$, *** $p < .001$

step1: Independent → dependent, step2: Independent → mediating, step3: Independent → dependent / mediating → dependent

사와의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와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적응의 다른 모든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성숙도를 높임으로써 긍정적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을 높이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Table 4>는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중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경우는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가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반면 교우관계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와 교우관계 간의 경로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분석한 결과, 분석 1단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44, p<.01$). 2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가 매개변인인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F=9.10, p<.01$). 그러나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가 함께 투입되었을 때 독립변인인 자율 양육태도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진로성숙도가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와 교우관계와의 관계를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수행된 Sobel 검정 결과,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가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은($Z=2.87, p<.00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는 교우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침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성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Table 5>, 각 분석의 1단계에서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모든 하위요인에 대한 어머니의 성취 양육태도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각 분석의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가 통제되었을 때 매개변인인 진로성숙도가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때 독립변인인 어머니의 성취 양육태도가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에 비해 각각 모두 감소하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utonomy and child's school adjustment (N=430)

Dependent variables	Analysis step	Paths	β	R^2	F	Sobel Z
Relationship with teachers	Step 1	autonomy → relationship w/ teachers	.23***	.06	24.57***	2.88**
	Step 2	autonomy → career maturity	.15**	.02	9.10**	
	Step 3	autonomy → relationship w/ teachers career maturity → relationship w/ teachers	.18*** .39***	.20	53.89***	
Relationship with peers	Step 1	autonomy → relationship w/ peers	.13***	.02	7.44**	2.87***
	Step 2	autonomy → career maturity	.15**	.02	9.10**	
	Step 3	autonomy → relationship w/ peers career maturity → relationship w/ peers	.08 .39***	.17	42.24***	
Classwork attitude	Step 1	autonomy → classwork attitude	.24***	.06	25.12***	2.92**
	Step 2	autonomy → career maturity	.15**	.02	9.10**	
	Step 3	autonomy → classwork attitude career maturity → classwork attitude	.17*** .44***	.25	70.32***	
School regulation	Step 1	autonomy → school regulation	.18***	.03	14.81***	2.87**
	Step 2	autonomy → career maturity	.15**	.02	9.10**	
	Step 3	autonomy → school regulation career maturity → school regulation	.13** .39***	.18	46.51***	

** $p < .01$, *** $p < .01$

step1: Independent → dependent, step2: Independent → mediating, step3: Independent → dependent / mediating → dependent

Table 5.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chievement and child's school adjustment (N=430)

Dependent variables	Analysis step	Paths	β	R^2	F	Sobel Z
Relationship with teachers	Step 1	achievement → relationship w/ teachers	.36***	.13	61.46***	5.50***
	Step 2	achievement → career maturity	.40***	.16	84.43***	
	Step 3	achievement → relationship w/ teachers career maturity → relationship w/ teachers	.23*** .32***	.21	57.79***	
Relationship with peers	Step 1	achievement → relationship w/ peers	.29***	.08	38.54***	5.60***
	Step 2	achievement → career maturity	.40***	.16	84.43***	
	Step 3	achievement → relationship w/ peers career maturity → relationship w/ peers	.15** .34***	.18	46.50***	
Classwork attitude	Step 1	achievement → classwork attitude	.40***	.16	80.75***	6.07***
	Step 2	achievement → career maturity	.40***	.16	84.43***	
	Step 3	achievement → classwork attitude career maturity → classwork attitude	.25*** .37***	.27	79.62***	
School regulation	Step 1	achievement → school regulation	.33***	.11	53.30***	5.44***
	Step 2	achievement → career maturity	.40***	.16	84.43***	
	Step 3	achievement → school regulation career maturity → school regulation	.20*** .32***	.20	52.59***	

** $p < .01$, *** $p < .01$

step1: Independent → dependent, step2: Independent → mediating, step3: Independent → dependent / mediating → dependent

Table 6.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ationality and child's school adjustment (N=430)

Dependent variables	Analysis step	Paths	β	R^2	F	Sobel Z
Relationship with teachers	Step 1	rationality → relationship w/ teachers	.30***	.09	39.77***	4.31***
	Step 2	rationality → career maturity	.24***	.06	25.55***	
	Step 3	rationality → relationship w/ teachers career maturity → relationship w/ teachers	.21*** .50***	.21	56.92***	
Relationship with peers	Step 1	rationality → relationship w/ peers	.23***	.05	24.08***	4.30***
	Step 2	rationality → career maturity	.24***	.06	25.55***	
	Step 3	rationality → relationship w/ peers career maturity → relationship w/ peers	.14** .37***	.18	46.64***	
Classwork attitude	Step 1	rationality → classwork attitude	.32***	.10	48.30***	4.49***
	Step 2	rationality → career maturity	.24***	.06	25.55***	
	Step 3	rationality → classwork attitude career maturity → classwork attitude	.22*** .42***	.27	76.79***	
School regulation	Step 1	rationality → school regulation	.27***	.07	33.25***	4.29***
	Step 2	rationality → career maturity	.24***	.06	25.55***	
	Step 3	rationality → school regulation career maturity → school regulation	.18*** .36***	.20	51.59***	

** $p < .01$, *** $p < .01$

step1: Independent → dependent, step2: Independent → mediating, step3: Independent → dependent / mediating → dependent

여 진로성숙도가 어머니의 성취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간에 부분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수행된 Sobel 검정 결과도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 양육태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직접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진로성

숙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4) 어머니의 합리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어머니의 합리적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간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합리 양육태도는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적응의 4가지 하위요인 모두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어머니 합리 양육태도는 진로성숙도를 통해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모두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는 어머니 합리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밝힘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아동 43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그들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취적 양육태도에서만 남아가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Y. Shin(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거는 부모의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양육특성이 반영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애정, 자율, 합리적 양육태도에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전처럼 자녀수가 많지 않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양육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진로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성별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최근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성숙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는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가 아동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수업태도가 좋으며 학교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진로성숙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교사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것과 더불어 부모교육 등을 통해 애정적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양육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에 대해 10%이상의 설명력을 보인 반면, 자율 양육태도와 합리 양육태도는 한자리 수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태도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양육태도 요인들 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중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애정적 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서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하위요인 별로 비교해볼 때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즉, 아동의 진로성숙도는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 중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는 직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진로성숙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도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자율 양육태도와 교우관계 간 관계에서는 유일하게 진로성숙도가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 중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S. Bae, 1998; G. Park 2013; Y. Yu, 1994)와 어머니의 자율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H. Jeon, 2006) 간의 차이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즉, 어머니의 자율 양육태도가 아동의 교우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어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계획하는 능력을 가지며 더불어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높은 진로성숙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로성숙도는 자신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독립성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밑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넷째, 어머니의 애정 양육태도뿐 아니라 아동이 지각하

는 어머니의 성취, 합리적 양육태도 역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성숙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학교생활적응의 세 가지 변인 간 경로의 메카니즘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즉, 어머니의 양육태도라는 개인 외적 환경변인이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진로성숙도라는 개인 내적 변인의 형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작용함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는 가정 내에서 바람직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머니들에게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 양육의 필요성은 물론 실제적인 양육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태도를 조사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을 받아들이는 자녀의 관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어머니의 일방적인 양육태도 변화에 국한시키기 보다는 이와 더불어 부모-자녀 간 관계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더불어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주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변인들 간의 경로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중다회귀분석에서 분석 3단계 결과들을 보면, 학교생활적응 각 하위요인에 대한 양육태도와 진로성숙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 양육태도 하위요인보다는 진로성숙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며, 따라서 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에 대한 적응프로그램은 학업 자체의 문제해결이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의 향상 등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 학교생활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수 있는 진로나 미래에 대한 가치관형성, 자기이해 등 진로성숙도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포함할 때 더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을 통해 가정에서 진로성숙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뿐 아

니라 진로인식 단계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가 진로발달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구성·운영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잘 탐색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계획, 준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우수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아동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 일의 세계에 대한 많은 관심 및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몇 개 구에 한정하여 조사대상자를 포집하였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연구대상의 표집지역을 확대한다면 연구의 신뢰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태도만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자녀의 미래나 진로 등에 관한 부분은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의 영향력도 중요한 것으로 예측되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추가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과 관련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에는 관련성이 높을 수 있으나 실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어머니가 실제 양육하는 방법을 함께 측정한다면 보다 풍부한 자료의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진로성숙도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에 비해, 조사대상을 중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학생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진로성숙도, 및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 Aunola, K., & Nurmi, J.-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s in children's problem behavior. *Child*

- Development*, 76(6), 1144-1159.
- Bae, S. J. (1998).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Baron, R., & Kenny, D.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urchinal, M. R., Roberts, J. E., Zeisel, S. A., & Rowley, S. J. (2008). Social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frican America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44(1), 286-292.
- Cha, Y. R. (2001). *A study on the children'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ae, Y. K. (2003). A study on some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4(3), 545-561.
- Cho, S.-H. (2012). *The influence of parent attachment on primary school children's adaptation on school lif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 Y. M. (2008). *Impact of communication with parents-adolescence's and self-efficacy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Choi, B. R. (2008). *A study on the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the youth's adaptation to school: Focused on income level, achievement motives and attitude maturity of co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M. S. (2003). *Influences of the individual and home environment variables on career maturity among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S., Hutchison, B., & Lemberger, M. E.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of South Korea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0(2), 163-177.
- Chung, I. J., Im, J. Y., & Hwang, M. H. (2011).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Scale for elementary schooler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4(3), 169-194.
- Chung, O. B. (2010). *Developmental psychology*. Seoul: Hakjisa.
- Crites, J. O. (1974). Problems in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1), 25-30.
- Ha, M. S., & Lee S. B. (2009). The influence of the children-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and self elasticity to adjust to school life. *Child Education*, 18(3), 247-258.
- Han, E. K. (2010). *The correlation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their mothers' parental attitude and ho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Y. A., & Park, J. H. (2008). The effect of parenting behavior,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2), 69-85.
- Jeon, H. Y. (2006). *Influence of familial environment variabl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i, Y. K. (2005).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on career interes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8(2), 165-180.
- Jo, E.-M. (2009). *A comparison of gender role identity and career maturity in the children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Joo, H. J. (1998). *The influences on the school-life adjustment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S. Y. (2006).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 peer relation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U.-J. (2002).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 University, Chinju, Korea.
- Kenny, M. E., Blustein, D. L., Haase, R. F., Jackson, J., & Perry, J. C. (2006). Setting the stage: Career development and the student engagement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 272-279.
- Keller, B. K., & Whiston, S. C. (2008).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2), 198-217.
- Keum, J. H. (2012).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career maturity, socio-economic status and parents attach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3*(3), 5-26.
- Kim, E.-J. (2005).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ego-identity, career maturity and school life adaptations of maladjusted students - The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Graduate School of Buddhism, Seoul, Korea.
- Kim, G. J. (2009).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upon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Kim, J. H. (2010). *The impact of the activity based career perception program on the career maturity, perceived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Kim, K. H. (2009). The effect of career guidance activities on career maturity of stud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8*(4), 182-200.
- Kim, S. J. (2002). *The effect of differences between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perception on children's emotional maladaptive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Jeju, Korea.
- Kuldau, J. E., & Hollis, J. W. (1971). The development of attitudes toward work among upper elementary school ages childr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387-397.
- Kurdek, L. A., Fine, M. A., & Sinclair, R. J. (1995). School adjustment in six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6*(3), 430-445.
- Lee, C. B. (2007). A longitudinal study of career attitude maturity change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3*(2), 115-134.
- Lee, E. Y., & Kim, K. H. (2005).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ir children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djustment in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1), 105-119.
- Lee, H. R. (2004).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aturity and multiple intellig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2), 83-99.
- Lee, S. H. (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sonality traits, and school-related adjustment.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0*, 85-104.
- Lim, S.-H. (1988).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the children and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Nam, K. J. (2004). Development and validity of career matur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Research, 17*(2), 73-91.
- Nam, M. Y. (2002). *Relations between the perceived parents rearing attitude,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4). Father's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beliefs as predictors of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the transition to schoo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4), 628-638.
- Oh, S. S. & Lee, J. S.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n and the affective characteristic of parental child-rearing style. *Research Note, 11*(1), 1-8.
- Park, E. Y. (2011). A study on factors of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6), 1-27
- Park, G.-A. (2013).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s school life adaptation, parenting attitude, reading time and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 Park, M.-J. (2009). *Relations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locus of control, and career matur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 thesis. Kangn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Korea.
- Park, Y. J. (2009).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in University, Pocheon, Korea.
-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 (2005). Supportive parenting, ecological context, and children's adjustment: A seven-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8*(5), 908-923.
- Rohner, R. P. (2010). Perceived teacher acceptance, parental acceptance, and the adjustment, achievement, and behavior of school-going youths internationally. *Cross-cultural Research, 44*(3), 211-221.
- Ryu, S. H. (2012).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8*(1), 151-164.
- Seo, H. (2013). *The effects of parental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self-esteem on school age boys' and girl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m, J. O.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mother's overprotection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for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Y.-S. (2002).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of parenting attitude and their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Choeran, Korea.
- So, H. S. (2002). *The relations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esteem as the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So, Y. H. (2011). The effect of learners' perception on parents academic involvement on career maturit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0*(4), 203-220.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Leinhardt, S. (Eds.), *Sociological methodology* (pp. 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 Song, B. K., & Jeon, J. Y. (201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maturity of the adolesc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xtension & Community Development, 20*(1), 235-264.
- Super, D. E. (1955).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61-163.
- Super, D. E. (1996). The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 Westbrook, B. W. (1984). Career maturity: The concept, the instruments, and the research. In W. B. Walsh and S. B.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Vol. 1, pp. 263-30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Yon, K. J., Jeong, J.-R., & M. Goh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career maturity of Korean adolescents: The effects of personal and contextual factor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3*(4), 727-739.
- Yoon, S.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guilt-pronen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Yu, Y. H. (1994). *Analysis of the relations among school adjustment, anxiety, and school achievement -focus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접수일 : 2014년 11월 15일

심사일 : 2015년 01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2월 02일